

죽산보 녹조 한달새 9배...4대강 ‘폭염 신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 공동주최로 4대강사업 영산강 수문 개방 현장조사가 진행된 26일 조사원들이 영산강 승촌보 우안 선착장에서 수질 등 생태조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환경부 16개 보 주간 분석
승촌보도 유해남조류 급증
주암호 등은 아직은 양호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영산강 등 4대강도 신음하고 있다. 비가 오지 않고 고기온이 지속하면 다음달 중순께 대규모 녹조가 우려된다고 환경부가 진단할 정도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기준 녹조(남조류) 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 영산강 승촌보는 양호, 죽산보는 경계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부가 전국 4대강 16개 보의 대표지점(보 상류 500m)에 대해 지난 23일자 주간 분석 결과, 승촌보는 지난 16일에 비해 유해 남조류가 203개/㎡에서 467개/㎡로 상승했다. 지난 16일 유해 남조류가 발견되지 않았던 죽산보에서는 지난 23일 7만1700개/㎡가 측정됐다. 이는 올들어 최다 수치로, 지난달(8124개/㎡)의 9배에 달한다. 환경부는 개방폭이 큰 승촌보와 달리 죽산보는 제한적인 개방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죽산보는 최저수위(1.35m)를 유지하고 있는 승촌보에 비해 수심(5m 내외)이 깊고 물의 체류시간도 길다. 현재 물 체류시간은 승촌보 3.5일, 죽산보 10.2일로, 죽산보는 죽조 이래 가장 긴 체류시간을 기록했다. 체류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보 안에 갇혀 흐리지 못한다는 의미다. 승촌보의 경우 점차 높아지는 수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유해남조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낙동강 8개 보 모두 유해 남조류수가 지난주 대비 대폭 증가해 조류경보 ‘관심’ 기준(1000개/㎡) 이상으로 나타났다. 금강의 경우 개방폭이 큰 세종보는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개방폭이 작은 백제보는 유해남조류수가 4690개/㎡로 나타나 영산강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또 주암호 등 전국 주요 상수원 28곳의 경우 낙동강 2곳(강정고령·창녕함안)을 제외하고는 녹조발생 물질인 유해 남조류가 조류경보 기준(1000세포수/㎡) 이하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폭염이 이어질 경우 다음달 중순께 대규모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는 평년에 비해 장마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유량·유속 증가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고, 폭염과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녹조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녹조는 장마 종료 후 약 5~6주 뒤에 체류시간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기와 맞물려 최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의 경우 장마가 지난 11일에 끝났고 8월 초순까지는 비소식이 없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남조류가 8월 중순께 최대강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올해는 장마가 짧아 물 흐름이 일찌감치 느려지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녹조가 발생하기 쉬운 여건”이라며, “가축분뇨 등 녹조 유발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고, 상류댐의 용수를 활용해 녹조를 씻어내리는 비상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7	달뜨기	19:18
해질	19:40	달지기	04:51

덥다 더워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끼겠다.

광주	구름 많음	26/36	보성	구름 많음	24/35
목포	맑음	26/35	순천	구름 많음	27/36
여수	구름 많음	27/34	영광	맑음	25/35
나주	구름 많음	25/36	진도	구름 많음	26/34
완도	맑음	26/34	전주	구름 많음	26/35
구례	구름 많음	25/36	군산	구름 많음	25/33
강진	맑음	24/35	남원	구름 많음	24/35
해남	맑음	25/35	흑산도	구름 많음	25/31
장성	구름 많음	25/3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	서~북서	0.5
	먼바다	남서~서	0.5~1.0	서~북서	0.5~1.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먼바다(동)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서부	먼바다(서)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32 02:57	19:22 14:44
여수	02:12 13:57	08:40 21:26

◇주간 날씨

28(토)	29(일)	30(월)	31(화)	8/1(수)	2(목)	3(금)
☁	☀	☀	☀	☀	☀	☀
27/35	26/35	25/34	25/34	25/35	25/35	25/35

◇생활지수

☕	경고
🍴	식중독
☀	매우 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광주경찰청장 김규현 전남경찰청장 최관호

치안감 16명 전보인사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김규현(54·경찰대 2기·서울) 경찰청 경비국장 이, 전남지방경찰청장에 최관호(53·간부후보 39기·국성)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이 임명됐다. 정부는 김규현 국장을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하는 등 경찰 치안감 1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6일 단행했다. 치안감은 서울·경기남부·인천·부산지방경찰청을 제외한 13개 지방청장과 경찰청 본청 국장급으로, 경찰 계급 중 서열 3위다. 김 신임 광주경찰청장은 서울 대일고와 경찰대, 대전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경기 광명경찰서장, 경찰청 인사과장, 서울 마포경찰서장, 대전지방청 1부장,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등을 지냈다. 최 신임 전남경찰청장은 광주 송일고, 동국대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무안시장, 인천국제공항대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감사담당관, 광주청 제1부장, 전북청 제2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규현 청장 최관호 청장

배유주 광주청장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강성복 전남청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한편 지난 25일 발표된 치안정감 5명의 승진·전보 인사에 지역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허경렬(57·간부후보 35기·담양) 경찰청 수사국장이 승진해 경기남부청장으로 전보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모두 6자리이며, 차기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치안감과 경무관 전보인사에 이어 내달 초까지 총경 이하인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북부소방서가 개에게 표창장 준 사연은

말바우시장 대형화재 막은
진돗개에 소방서장상 수여
표창패·부상품 사료 전달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대형 화재를 막은 진돗개 믹스견 ‘가을이’(2년생)가 북부소방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광주일보 2018년 7월24일자 6면> 소방서가 동물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것은 처음이다. 가을이는 불이 나자 크게 짖어 주인을 깨워 화재를 조기진압하도록 도왔다. 광주 북부소방서는 “전통시장에서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도운 충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주인에게는 상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0시 20분께 광주시

표창장을 수여하고 주인에게는 상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0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의 한 횡집 1층에서 불이 났다.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횡집 주인 조모(62)씨는 가을이가 짖는 소리에 잠을 깨 화재를 발견했고,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불을 끌 수 있었다. 북부소방서는 가을이를 찾아 광주북부소방서장상을 수여하고, 화재를 초기진압한 조씨에게는 유공자 표창패와 함께 부상품(개 사료)을 전달했다. 조태길 북부소방서장은 “개가 주인을 깨워 인명피해를 줄인 이번 사례는 매우 드물다.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뻔 했다”며 “화재는 초기 발견과 진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 홍보 차원에서 표창장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양 38.3도 올 최고

주말·휴일에도 폭염 기승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섭씨 35도 내외를 유지하며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6일 광양을 38.3도, 곡성 37.6도 등으로 올들어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광주는 지난 12일부터 폭염특보(낮최고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 기준)가 15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다음달 5일까지 광주·전남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를 전망”이라고 26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27일 광주·전남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고, 낮 최고기온은 31~36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더불어 행복하. 더 좋은 정읍!

Happy Together, Better Jeongeup!

색이 아름다운 정읍, 자연과 함께합니다.

정읍 여름 여행